

문화연구와 성서 연구: 해석의 맥락과 윤리

- 스투어트 홀과 매리 톨버트를 중심으로 -

안 용 성

(G.T.U 박사과정)

- I. 들어가는 말: 왜 문화연구인가?
- II. 학제적 연구로서의 문화연구
- III. 문화연구와 스투어트 홀
- IV. 스투어트 홀: 사회 집단들, 이데올로기와 실천, 그리고 그들 사이의 접합
- V. 매리 톨버트: 정체성과 연대를 위한 비본질주의적 대안
- VI. 수사학이자 윤리학으로서의 성서 해석학
- VII. 성서 연구를 통한 한국 기독교 문화연구

• **ABSTRACT** •

How can cultural studies be utilized to enrich biblical studies, and how can biblical interpretation extend the boundary of cultural studies? How can these questions be addressed in the Korean context - in theory and in practice? With these questions in mind, this paper examines the two representative figures of each field, Stuart Hall and Mary Tolbert. After establishing the relevance of this project on the basis of inter-disciplinary characteristics of cultural studies, I describe the two scholars' works in each setting. Stuart Hall is illuminated through his strategy of "articulation" among social groups, ideologies, and practices. He builds upon Althusser and Gramsci to found a cultural understanding of social formations and to extend geographical boundary of cultural studies. Hall's scholarship is compared with Mary Tolbert's "politics and poetics of location." She combines the strategic merit of essentialism with sensibilities of postmodernism to found a non-essentialistic way of cultural practice and solidarity. From this analysis, she proceeds to her hermeneutics as rhetoric and poetics as ethics. This paper concludes with a proposition for a Korean Christian cultural studies through biblical studies.

Keywords: cultural studies, Biblical Studies, Ethics of Interpretation

주 제 어: 문화연구, 성서연구, 해석의 윤리

I. 들어가는 말: 왜 문화연구인가?

성서학도인 나는 해석학적 관심으로 문화에 접근한다. 독자가 텍스트와 만나 의미를 이끌어내는 작업이 곧 해석이라 할 때, 성서 본문과 그 본문을 읽는 '나'의 정체성은 둘 다 문화 속에서 문화와 조우하는 가운데 형성되기 때문이다. 양자의 만남으로 생성되는 의미 역시 문화의 영향을 받으며 또 문화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문화를 어떻게 다루고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하는 질문은 성서 해석자인 나에게도 매우 중요하다.

문화를 이해하고 다루는 여러 시도들 중 하나인 문화연구(cultural studies)가 성서 연구에 유용하다고 생각되는 이유는 문화연구가 성서 본문과 독자와 해석 과정을 통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이다. 문화연구는 '신약성서 기록의 배경이 되었던 고대 지중해 연안의 문화에 대한 연구' 또는 '오늘의 한국문화에 대한 연구'처럼 문화를 연구 대상의 일부로 (a study of culture) 또는 텍스트/독자와 구별된 콘텍스트로 다루기보다는, 독자와 성서 본문 그리고 의미 생성 과정 전체를 하나의 문화적 현상으로 설명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돕는다.

성서 해석을 하나의 문화 현상으로 이해하고 그 현상을 해명하는 일은 성서 연구를 풍부하게 할 뿐 아니라 문화연구의 외연을 확장하는 일기도 하다. 그런 점에서 이 글은 '문화연구를 통한 성서 연구'이자 '성서 연구를 통한 문화연구'의 한 시도라 할 수 있겠다. 나는 이 글에서 다양한 성서 해석들이 공존하는 현실에 주목하여, 문화연구가 그러한 현실을 해명하는 일을 도울 수 있음을 보이고자 한다. 문화연구의 관점에서 볼 때, 해석의 다양성은 해석의 맥락 또는 독자가 처한 사회적 상황의 차이와 관련된다. 그것은 또한 해석자가 어떤 집단에 속해 있으며 그 집단이 다른 집단들과 어떤 관계에 있느냐 하는 질문과도 관련된다.

신약성서학자 매리 톨버트(Mary Ann Tolbert)는 이러한 질문을 적절히 다루어 성서 연구를 통한 문화연구의 한 모델이 될 만한 것을 제시한다. 그녀는 해석학이 가지는 수사학적 성격에 주목하며, 성서라는 권위 있는 텍스트의 해석이 가져오는 문화적 결과에 대한 해석자의 윤리적 책임을 강조한다. ‘위치 지어짐의 정치학과 시학’(Politics and Poetics of Location)으로 대변되는 톨버트의 문화이론과 성서해석학은 스투어트 홀(Stuart Hall)의 문화연구 작업들과 연관될 수 있다. 이데올로기와 실천 그리고 사회 구성과 변화에 대해 문화가 가지는 영향력에 대한 홀의 논의는 영국 문화연구와 관련지어 분석되고 검토될 것이다. 이 글은 연대순으로, 즉, 문화연구에 대한 개괄적 서술에서 시작하여 스투어트 홀을 거쳐 톨버트에게 나아가는 순서로 문화연구와 성서 연구의 만남을 기술한 후, 성서 연구를 통한 한국 문화연구의 한 가능성을 모색해보려 한다.¹⁾

II. 학제적 연구로서의 문화연구

문화를 다루는 많은 연구들은 ‘문화’라는 용어의 개념을 정의하면서 시작하곤 한다. 그런데 그 정의들은 연구자에 따라 서로 많이 다르고, 심

1) 문화연구는 실천으로서의 학문을 추구한다. 그 실천은 늘 사회적 맥락에 위치되기 마련이기에, 문화연구자들은 그들의 연구 결과를 하나의 이론(대문자 Theory)으로 일반화하기를 거부한다. 일반화된 이론은 현상과 동떨어져서 그리고 현상에 앞서 미리 그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가치중립적인 도구로 오해되고 오용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문화연구가 지향하는 이론화(theorizing) 작업은 개별 현상들과의 만남을 돕고 또 그러한 만남이 새로운 이론화를 돕게 하는 ‘우회로’(detour)와 같은 기능을 하는 것이다.

서구의 조류를 소개하는데 많은 부분을 할애한 이 글은 자칫 문화연구가 경계하는 이론적 일반화의 위험에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을 처음부터 가지고 있다. 아마도 이러한 위험성은 소극적으로 거부함으로써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학문의 맥락에 대한 인식과 감수성 그리고 실천으로서의 학문에 대한 분명한 목표 의식을 가지고, 우리 학계가 함께 지양하고 지향하며 적극적으로 발전시켜야 할 점이라 생각된다.

지어 경우에 따라서는 서로 반대되는 내용들을 담고 있기도 하다.)²⁾ 문화는 오늘날 ‘모든 사람들의 입술에’ 있고 (Marshall Sahlins), 결국 어찌면 서로 다른 사람들이 자신이 다루려는 서로 다른 현상들을 ‘문화’라는 한 가지 말로 정의하고 있을 뿐인지도 모른다. 문화란 ‘정치, 경제, 사회, 문화’라는 일반적 분류가 암시하는 것처럼 인간 사회 현상의 어느 한 측면으로 제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영역에 걸쳐 있다. 따라서 정치, 경제학, 심리학, 철학, 문학, 문화인류학 등 다양한 학문 분과 간 분업 체계 속에서 문화를 다루는 데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

문화의 이러한 편재성을 고려할 때, 문화연구가 하나의 배타적 학문 분과에 머물기를 거부하고 (counter-disciplinary), 문화 현상을 학제적으로 다루기를 추구하며 (inter-disciplinary), 스스로를 복수형으로 (cultural studies)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 생각된다. 이렇게 함으로써 문화를 그 사회 정치적 맥락으로부터 분리시킬 수 있는 현상으로 다루기보다는, 그 전체 맥락을 통해 다양하고 복합적인 형태로 나타나는 인간의 총체적 삶의 방식에 주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 각 분야의 연구자들은 각자의 특성을 가지고 총합으로서의 문화연구에 기여할 수 있다.

문화연구는 각 분야의 독특성을 가지고 전개될 뿐만 아니라, 지역에 따라서도 그 전개되는 양상이 사뭇 다르다. 한국 문화연구는 10여년의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문학, 언론학, 여성학, 사회학, 미학 등 다양한

2) 예를 들어, 어떤 문화인류학자들은 문화를 ‘사회적 행동’으로 정의하지만, 다른 어떤 사람들에게서 문화란 행동 그 자체가 아니라 행동에서 추상된 것이다. 어떤 사람들에게겐, 돌도끼와 도자기, 춤과 음악, 패션과 유행 같은 것이 문화이지만, 반대로 물질적 대상은 문화가 될 수 없다고 보는 사람들도 있다. 또 다른 어떤 사람들에게 문화란 오직 마음속에만 존재한다. Ziauddin Sardar and Borin Van Loon, *Introducing Cultural Studies* (New York: Totem Books, 1998), 4.

다량의 삽화를 곁들여 특징을 잘 설명해 주는 토템출판사의 “Introducing ...” 시리즈는 최근의 난해한 학문 경향들을 이해하기 위한 입문서로 유용하다. 이 시리즈는 김영사에서 ‘하룻밤의 지식여행’이라는 이름으로 번역해 출간하고 있다. 위의 책도 번역되어 있다. 이영아 옮김, 『문화연구』(서울: 김영사, 2002).

분야에서 관심을 불러일으켰으며, 최근 들어서는 인류학, 민속학, 정치학, 역사학 등으로 그 범위를 확대해나가고 있다.³⁾ 신학계에서는 문용식이 『총신대 논총』에 발표한 글에서 문화연구를 개괄적으로 소개⁴⁾한 것 외에 직접적으로 이 주제를 다룬 글들은 많지 않다. 그러나 주로 기독교윤리학 자들에 의해 이와 비슷한 관심들이 표명되기도 하고,⁵⁾ 현대문화를 다루는 강의나 세미나들에서 문화연구 이론들이 진지하게 다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⁶⁾ 이 글은 그 범위를 성서 연구로 확대하려는 한 시도이다.

3) 원용진, “한국의 문화연구 지형,” 『문화과학』 제38호 (2004. 6.): 138-153. 원용진은 이 글에서 한국 문화연구가 대체로 세 가지 논의를 거쳐 발전되어 왔다고 한다. 한국에 문화연구가 소개된 후 첫 단계의 주요 이슈는 이데올로기 문제였다. 이 시기에는 과거 정치경제학의 전유물이던 이데올로기가 문화연구의 주제로 부각되며, 이데올로기의 문화적 심급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한국 문화연구의 두 번째 단계는 ‘권력’에 주목했다. 국가와 정부에 의해 수행되는 거대권력을 넘어 미시권력, 생체권력이 꾸준히 논의되었고, 근대성과 탈근대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이 두 번째 시기는 곧이어 찾아온 세 번째 단계와 상당 부분 중첩되었다고 하는데, 다음 단계에는 ‘욕망’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이데올로기적 형태의 (또는 결핍으로서의) 욕망이 아닌 생성을 위한 욕망이 논의의 초점이었다.

4) 문용식, “문화연구란 무엇인가?,” 『총신대 논총』 제23호 (2003): 347-370.
 이 글은 문화연구의 다양한 정의들로부터 시작하여 영국 - 호주 - 미국으로 이어지는 문화연구의 역사, 그리고 문화연구를 특징짓는 몇 가지 요소들을 개괄적으로 정리한 후, 문화연구에 대한 기독교적 접근의 가능성을 찾아보고 있다. 이 글에서 저자는 문화연구하는 기독교적 방법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라고 전제하고, ‘기독교 문화 연구’란 문화 텍스트를 ‘있는 그대로’ 일반 문화 이론을 사용하여 분석한 후, ‘최후의 과정’에서 그 텍스트에 나타난 세계관을 기독교적 시각으로 분석하는 것이라고 규정한다 (363-364). 여기서 ‘기독교적 시각’은 ‘그리스도의 윤리학을 진리의 절대적인 근거’로 삼기 때문에, ‘상대주의적 관점’을 취하는 현대 문화 연구와 ‘좁혀질 수 없는’ 갈등 관계에 있다 (367). 문용식이 제시하는 ‘기독교 문화 연구’란 최종적으로 개입되는 평가 관점에 국한된 것으로서, 방법론으로서의 (일반) 문화 연구와 이원화되어 있으며, 양자를 좁힐 구체적인 대안은 제시되지 않는다. 그러나 모든 방법론은 그 자체가 평가 관점을 포함하는 것이기에, 저자 자신의 표현대로, ‘데카르트의 주관-객관의 이원론적인 실재의 구분’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5) 예를 들어, 박종균, “대안적 커뮤니케이션 양식과 기독교,” 『세계의 신학』 제46호 (2000년 3월), 151-172을 보라.

6) 예를 들어, 임성빈 교수가 2005년 1학기 장로회신학대학교 대학원(Th.M.)과 신학대학원(M.Div.)에 각각 개설한 『현대 문화와 윤리』 그리고 『문화와 현대한국사회』 과목은 첫 강의를 문화연구에 대한 소개에 할애하였다.

III. 문화연구와 스튜어트 홀

‘문화연구’라는 이름은 영국 버밍햄대학교 현대문화연구소(the Birmingham Center for Contemporary Cultural Studies, CCCS)에서 유래한다. 이 연구소를 이끌었던 레이몬드 윌리엄스 (Reymond Williams), 리차드 호가트 (Richard Hogart), 에드워드 톰슨 (Edward P. Thompson), 스튜어트 홀 (Stuart Hall) 등은 문화연구의 창시자들로 간주된다. 이들은 그 연구소를 통해 사회적 실천이자 문화 변혁 운동으로서의 학문 활동을 정초하고자 했다. 초창기 연구자들의 논쟁 상대는 리비스(F. R. Leavis)였다. 리비스가 문화를 ‘고급문화’ 또는 ‘교양’과 동일시하며 대중문화를 저급하고 ‘위험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것에 대항하여 호가트와 윌리엄스 등은 문화를 ‘물질적, 지적, 정신적 방식을 포함하는, 삶의 총체적인 방식’으로 정의하고,⁷⁾ 노동자 계급의 문화 또는 하위문화(subaltern culture)의 정당성을 세우고자 했다.⁸⁾

문화연구를 시작한 사람들에게서 학문이란 문화와 정치 현실에 ‘개입’하는 것이었다. 그러한 ‘개입’을 위해 문화연구자들은 대학의 한 학문 분과에 머물기를 거부하고, 그들이 운영하던 연구소를 통해 학제적 연구를 추구하며 현실과 함께 숨 쉬는 새로운 지식 생산 방식을 개발하고자 했다.⁹⁾ 스튜어트 홀은 창립자 중 하나이자 제2대 연구소장으로 이러한 실천과 문제 틀 설정의 한 가운데 있었다.¹⁰⁾

7) 윌리엄스의 정의이다.

8) 호가트와 윌리엄스는 노동자의 가정에서 태어났고, 톰슨은 흑인이었으며, 홀은 영국령 자메이카 출신이다.

9) 원용진, “문화연구와 스튜어트 홀,” 『문화과학』 제23호 (2000년 9월): 296-297.

10) 연구소의 초기 역사에 대한 상세한 기술은 홀이 쓴 회고를 참고하라. Stuart Hall, “Cultural Studies and the Centre: Some Problematics and Problems,” 임영호 옮김, “문화연구와 버밍엄 연구소: 몇 가지 문제들과 문제들,” 『스튜어트 홀의 문화 이론』 (서울:

홀은 1950년대 영국 신좌파 운동을 주도한 사람이기도 하다. 신좌파란 노동당이나 공산당에 속하지 않고 독립된 그룹이다. 이들은 주로 영국 식민지 출신의 지식인들로서, 1956년 러시아의 헝가리 침략을 비판적 시각으로 바라보며 맑스주의에 대해 재고하기를 요구했다. 그러나 영국의 지배적 좌파 세력이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은 독립적인 운동을 형성할 수밖에 없었다. 스튜어트 홀 역시 영국령 서인도 제도의 자메이카 태생이다. 신좌파 운동의 이러한 인종적 배경은 그 운동에 뿌리를 둔 문화연구가 인종과 정체성, 식민주의 등 복합적인 요인들을 포괄하는 흐름으로 발전하게 한 원인이기도 하다.¹¹⁾

이처럼 문화연구는 처음부터 인종적 지역적 복합성을 안고 시작했다. 이런 배경 속에서 홀은 문화연구가 영국으로부터 세계로 그 범위를 넓혀 가는 다리의 역할을 했는데, 미국에 문화 연구를 처음 소개한 그로스버그 (Lawrence Grossberg)가 홀과 긴밀한 관계 속에 있었으며, 한국 문화연구의 시작도 홀이 정립한 이데올로기 논의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홀의 이데올로기 논의는 사회 집단들의 구성과 상호 관계, 실천이라는 주제들과 연결되어 있으며, 이러한 전략적 숙고에서 문화적 요인들이 차지하는 중요성을 잘 드러낸다. 스튜어트 홀이 다룬 주제들은 이 글의 관심사인 해석의 다양성 문제와도 밀접하게 관련된다. 서로 다른 해석들의 공존은 서로 다른 해석적 시각에 기인하는 경우가 많으며, 다양한 시각은 종종 해석자가 속한 다양한 집단과 경험으로 말미암고 또 집단 간의 역학 관계에도 관련되기 때문이다.

IV. 스튜어트 홀: 사회집단들, 이데올로기와 실천 그리고 그들 사이의

한나레, 1996), 137-202.

11) Sardar and Loon, *Introducing Cultural Studies*, 39-40.

접합

홀의 이데올로기 논의는 고전 정치경제학과 대면하는 가운데 형성되었다. 고전 이론에서 이데올로기는 곧 지배 이데올로기 또는 지배계급의 이데올로기와 동일시된다. ‘토대’가 ‘상부구조’를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경제결정주의), 또는 모든 문화적 현상이 물질적 토대에 기인한 것으로 설명되는 (환원주의) 도식에서 이데올로기의 역할은 부수적일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서 이데올로기란 경제적 토대로부터 파생된 상부구조의 일부로서, 지배계급이 현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피지배자들 가운데 ‘허위의식’을 만들어내는 도구에 불과하다.

홀은 그러한 이데올로기 개념을 중립화시켜, ‘사회가 돌아가는 방식을 이해, 정의, 파악, 설명하기 위해 다양한 계급과 사회 집단이 사용하는 정신적인 틀 - 언어, 개념, 범주, 사유의 상, 재현 체제들’로 정의한다.¹²⁾ 지배계급뿐만 아니라 모든 계급과 집단이 이데올로기를 가질 수 있으며, 그 이데올로기는 ‘허위’를 통해 ‘지배’에만 이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의 역할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이제 홀에게서 이데올로기 문제는, ‘지배 계급의 의지가 어떻게 관철 되는가’ 하는 단순한 질문에 더하여 ‘다양한 종류의 관념들이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고 물질적인 힘으로 되는 방식’을 설명하는 것이 되었다.¹³⁾

홀의 이데올로기론은 알튀세르(Louis Althusser)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¹⁴⁾ 알튀세르는 토대와 상부구조로 이루어진 단층집의 고전적 메타포

12) Stuart Hall, “The Problem of Ideology: Marxism Without Guarantees,” 임영호 옮김, “이데올로기의 문제: 보증 없는 마르크스주의,” 『스튜어트 홀의 문화 이론』, 31.

13) 같은 글.

14) 홀은 1968년 유럽의 경험을 통과하면서 문화연구의 주 관심이 리비스에 대항하는 ‘문화주의’(culturalism)에서 알튀세르의 영향을 받은 구조주의로 넘어갔다고 말한다. 문화주의와 구조주의 사이의 논쟁에 관해서는 Stuart Hall, “Cultural Studies: Two Paradigms,” 임영호 옮김, “문화연구의 두 가지 패러다임,” 『스튜어트 홀의 문화 이론』,

를 다층 건물의 이미지로 바꾸어, 경제적 토대와 정치적 상층 구조 사이에 이데올로기라는 또 하나의 층을 상정하고, 역사의 ‘모순’과 ‘결정’은 경제라는 한 수준이 아니라 이데올로기를 포함한 여러 수준으로부터 복합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중층결정’ (overdetermination) 이론을 제시했다.¹⁵⁾ 그의 이론은 이데올로기적 국가 기구(Ideological State Apparatuses: ISA)에 대한 관찰을 통해 체계화 된다. ISA란 종교, 교육, 가족, 법, 정치, 노동조합, 언론, 문화 등 다양한 사적 영역들을 가리키는데, 억압적 국가 기구(Repressive State Apparatus: RSA - 정부, 관료, 군대, 경찰, 법원,¹⁶⁾ 감옥 등)가 폭력과 강제력을 통해 기능하는 반면, ISA는 이데올로기를 통해 지배 체제의 유지를 돕는다.¹⁷⁾

홀은 알튀세르의 ‘모순과 중층결정’ 개념을 통해 구조/상부구조의 메타포와 그 메타포에 기초한 ‘결정’에 대한 이해를 새롭게 하여, 다양한 기원을 가진 다양한 사회적 모순의 문제를 해명하고자 했다.¹⁸⁾ 그러나 홀은 알튀세르가 이데올로기와 허위의식을 구분한 점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그가 여전히 이데올로기를 지배계급의 아이디어와 동일시하고 있음을 지적한다.¹⁹⁾ 이러한 이해의 결과로 알튀세르의 ISA 개념은 시민사회의 많은

203-232를 참조하라. 이 시기 문화연구의 일반적 상황에 대해서는 Colin Sparks, “Stuart Hall, Cultural Studies and Marxism,” in *Stuart Hall: Critical Dialogues in Cultural Studies* (ed. David Morley and Kuan-Hsing Chen; London: Routledge, 1996), 79-88을 참조하라.

15) Louis Althusser, “Contradiction and Overdetermination,” in *For Marx* (trans. Ben Brewster; The Penguin Press, 1969), 94-101.

16) 알튀세르는 법을 RSA와 ISA 양쪽에 모두 속하는 것으로 분류한다.

17) Louis Althusser, “Ideology and Ideological State Apparatuses (Notes towards an Investigation),” in *Lenin and Philosophy and Other Essays* (trans. Ben Brewster; New York: Monthly Review Press, 1979), 141-148.

18) Stuart Hall, “Signification, Representation, Ideology: Althusser and the Post-Structuralist Debates,” 임영호 옮김, “의미 작용, 재현, 이데올로기: 알튀세르와 후기 구조주의 논쟁,” 『스튜어트 홀의 문화 이론』, 61-63, 66-67.

19) Althusser, “Ideology and Ideological State Apparatus,” 146.

자율적인 부분들을 아무 거리낌 없이 국가와 동일시하게 된다는 것이다.²⁰⁾ 알튀세르가 ISA를 단순히 지배 이데올로기가 재생산되는 곳으로 간주하는 반면, 홀은 이데올로기의 장을 ‘상대적으로 자율성을 갖는, 구성과 규제와 사회적 투쟁의 장’으로 이해한다.²¹⁾

이러한 이해는 그람시(Antonio Gramsci)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알튀세르의 ‘이데올로기적 국가 기구’에 상응하는 것이 그람시의 ‘시민사회’인데, ISA가 RSA와 대조되듯이 ‘시민사회’(civil society)는 ‘정치사회’(political society, 또는 ‘국가’)와 대조된다. 국가를 강제와 권위의 영역으로 본 점에서는 두 사람이 비슷하다. 그러나 알튀세르가 ISA를 이데올로기적 ‘지배’의 매개로 본 반면, 그람시는 시민사회를 ‘동의’(consent)와 ‘헤게모니’(hegemony)의 영역으로 이해한다. 여기서 헤게모니는 - 강제를 통한 ‘지배’(domination)와 구별되는 의미에서 - 교육적, 도덕적 권위를 통한 ‘지도’(leadership)이다.²²⁾ 그람시는 지배계급뿐만 아니라 이에 대항하는 사회 집단 역시 다른 집단들의 동의를 얻어내는 활동을 통해 헤게모니에 도달할 수 있다고 봄으로써 시민사회에 대한 일반적 관심을 극대화시켰다.²³⁾

20) Hall, “의미 작용, 재현, 이데올로기,” 75-77.

21) 같은 글, 100.

22) Antonio Gramsci, “Modern Prince,” in *Selections from the Prison Notebooks of Antonio Gramsci* (eds. and trans. Quintin Hoare and Geogfrey Nowell Smith; N.Y.: International Publishers, 1971), 144-147. 『그람시의 옥중 수고』는 두 권으로 번역되어 출간되었다 (이상훈 옮김; 서울: 기획출판 거름, 1986).

23) 그람시의 ‘시민사회’론에 대한 관심의 폭이 큰 만큼, 시민사회와 그 영향력에 대한 해석도 다양하다. 시민사회를 통한 사회변혁의 가능성에 주목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다른 편에는 그람시가 정치사회와 시민사회를 둘 다 중요시했음을 강조하며, 특히 한국의 상황에 터하여, 시민사회만을 통한 변화의 시도에는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는 사람들도 있다. 후자에 속하는 사람들은, 그람시가 시민사회와 헤게모니를 통한 ‘지도’(또는 진지전)를 이론화 한 것이 사실이지만, 그가 정치사회를 통한 강제와 지배의 계기(또는 기동전)도 결코 무시하지 않았음을 강조한다. 다음 글들은 이런 입장을 반영한다. 이해영, “안토니오 그람시: 거절당한 혁명과 혁명의 미래,” 『동향과 전망』 37 (1998. 4): 241-258; 강옥초,

그람시와 알튀세르는 한 사회의 구성과 변화의 역학에서 문화적 요인이 차지하는 중요성을 잘 보여준다. 고전 정치경제학이 ‘생산양식’으로 역사 단계를 구분하고 ‘계급’으로 사회 집단을 구분하는 데 반해, 두 이론가들은 하나 이상의 생산양식이 한 사회구성체 내에서 상이한 접합 수준(정치적, 경제적, 이데올로기적 심급)을 통해 복합적으로 결합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²⁴⁾ 또 그람시는 생산관계에 의해 결정되는 범주인 ‘계급’ 대신 ‘역사적 블록’(historical bloc)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사회 집단 구성의 다양성과 복합성을 담아내고자 했다.²⁵⁾ 하나의 역사적 블록 내에서는 다양한 집단과 계급이 양보와 타협을 통해 결합될 수 있다.²⁶⁾

그람시가 문화연구의 관심을 끄는 또 하나의 요인은 그의 지리적 상상력이다. 그는 이탈리아 사회를 분석하고 전략적으로 숙고하는 가운데, ‘남부문제,’ 즉 산업화된 북부와 저개발 상태의 남부 사이에 존재하는 의존과 불균형의 문제를 중요하게 다루었다.²⁷⁾ 그는 또한 남부의 가난한 농민들이 북부의 노동자와 연대하여 사회변혁의 동력이 되기보다는 무솔

“왜 한국에서 아직도 그람시인가?” 『역사비평』 1998 겨울호 (1998.11): 282-299.

중요한 점은 이러한 논쟁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바로 그람시 자신이라는 것이다. 그의 저작을 보면, 어느 곳에서는 진지전에 시한부적 가치를 부여하는 것처럼 - 즉, 기동전의 때가 오기까지만 유효한 것처럼 - 말하지만, 어느 곳에서는 ‘서구’ 사회에서 진지전만이 유일한 대안인 것처럼 말하기 때문이다. Antonio Gramsci, “State and Civil Society,” in *Selections from the Prison Notebooks*, 210-276과 이 글에 대한 편집자들 (Hoare and Smith)의 소개글(206-209)을 보라.

24) 이러한 그람시 이해는 홀이 알튀세르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구성한 것이다. Stuart Hall, “Gramsci’s Relevance for the Study of Race and Ethnicity,” in *Stuart Hall: Critical Dialogues in Cultural Studies* (eds. Morley and Chen), 420-421. 이 글의 번역본을 인터넷에서 찾아볼 수 있다. 김덕련 옮김, “문화연구에서 그람시의 적절성,” 『읽을꺼리』 제6호 (2000년 7월), online: http://copyle.jinbo.net/reader/reader6_reader.html.

25) Gramsci, “Modern Prince,” 137.

26) 같은 글, 181-182.

27) 남부문제에 관해서는 다음 글을 참조하라. Antonio Gramsci, “Some Aspects of the Southern Question,” in *Selections from Political Writings (1921-1926)* (eds. and trans., Quintin Hoare; London: Lawrence and Wishart, 1978).

리니의 파시스트 정권에 동화되어 지배의 유지에 기여한다는 점에 대해 깊이 고민했다. 이러한 관찰은 그로 하여금, 생산관계의 모순을 역사 발전의 ‘유기적’ (또는 결정적) 원인으로 보는, ‘경제주의’를 반박하게 하는 근거가 되었다.²⁸⁾ 이처럼 역사적 경험에 대한 지리적 탐구를 통해, 그람시는 모든 사회관계가 계급 관계로 단순화될 수 없고 지역과 문화와 민족의 차이 그리고 지역 간 국가 간에 존재하는 발전 속도의 차이로 인해 복잡하게 얽힌다는 점을 드러냈다. 뿐만 아니라 그는 국내의 세력 관계를 국제 관계와 결부시켜 설명해 냄으로써 오늘날 탈식민주의 연구에도 중요한 전거가 되었다.²⁹⁾

그렇다면 이처럼 다양한 사회 집단들과 실천들과 이데올로기들은 어떻게 매개될 수 있는가? 그러한 결합을 설명하는 것이 홀의 ‘접합’(articulation) 개념이다. 홀은 이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 대형 화물 자동차의 유비를 사용한다. 즉 트럭의 앞부분(cab)과 뒷부분(trailer) 사이에는 특수한 고리가 있어 둘을 서로 연결할 수도 있고 분리시킬 수도 있다. 접합이란 이처럼 ‘어떤 조건 아래 두 개의 다른 요소를 통일시킬 수 있는 연결 형태’이다.³⁰⁾ 서로 다른 집단들과 관념들과 실천들이 ‘어떤 조건 아래’ 서로 결합될 수도 있고 분리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홀의 이론이자 방법론이며 동시에 전략이기도³¹⁾ 한 ‘접합’에 대한 유

28) 역사 발전 단계와 세력 관계에 대한 그람시의 분석은 “Modern Prince,” 175-185와 “State and Civil Society,” 233을 보라.

29) Gramsci, “Modern Prince,” 176-177.

에드워드 사이드(Edward Said)는, 그람시의 지리적 모델을 발전시켜, 식민지배자들의 문학에서 ‘언급의 구조와 태도’(structures and attitude of reference)를 분석해냈다. 이 용어는 레이몬드 윌리엄스의 ‘감정의 구조’(structures of feeling)에서 차용한 것이기도 하다. Edward Said, *Culture and Imperialism* (New York: Vintage Books, 1993), 48-53를 보라.

30) Lawrence Grossberg, ed., “On Postmodernism and Articulation: An Interview with Stuart Hall,” 임영호 옮김, “포스트모더니즘과 접합: 스튜어트 홀과의 대담,” 『스튜어트 홀의 문화 이론』, 119-120.

비적 설명에서 ‘어떤 조건’이라는 말이 가진 함의는 홀을 고전 정치경제학과 분리시키면서 동시에 그를 라클로(Ernesto Laclau)의 수정주의와도 구별시킨다.³²⁾ 라클로는 서로 다른 실천들 사이에, 이데올로기와 사회 세력들 사이에, 이데올로기 내의 서로 다른 요소들 사이에, 그리고 한 사회 운동을 구성하는 서로 다른 집단들 사이에 존재하는 연결은 ‘우연적’이고 ‘비필연적’(non-necessary)이라고 주장한다. 다시 말해서, 그 연결에는 ‘아무런 조건도 없다’는 것이다. 고전적 입장이 토대와 상부구조 사이에 ‘필연적 상응’ (necessary correspondence) 관계를 상정한 반면, 라클로는 그러한 ‘상응 관계가 전혀 없음’(necessary non-correspondence)을 주장한다는 것이 홀의 이해이다. 홀 자신은 두 입장의 중간 지점을 선택한다 (non-necessary correspondence). 즉, 사회 집단과 계급들이 처해 있는 물질적 여건과 관념들 사이에 필연적인 결정 관계는 없으나 어떤 경향성 (tendential alignments) 또는 ‘흔적’(traces)이 존재한다는 것이다.³³⁾ 홀이 보기에 수정주의는 담론적 가능성의 유희에 집중하여 이론적 논쟁에 관심을 부각시킨 나머지 은연중 정치 현실에 대한 고민을 뒤로 숨겨버리게 된다.³⁴⁾

수정주의에 대한 홀의 비판은 포스트모더니즘에 대한 그의 이해와도

31) Jennifer Daryl Slack, “The Theory and Method of Articulation,” in *Stuart Hall: Critical Dialogues in Cultural Studies* (eds. Morley and Chen), 112-114, 121-123.

32) ‘접합’ 개념은 라클로가 먼저 개발했고 홀이 비판적으로 차용한 것이다. Lawrence Grossberg, ed., “On Postmodernism and Articulation: An Interview with Stuart Hall,” 120.

33) Hall, “이데올로기의 문제,” 55-56.

홀은 스스로를 수정주의와 구분하지만, 여전히 물질적 토대 변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그를 포함한 문화연구 전체를 수정주의로 간주하고, 신사회운동(new social movements)이 신자유주의와 공존하고 있는 현실을 문화연구의 당연한 귀결로 간주하여 비판한다. 다음 글이 그 좋은 예이다. 하윤금, “문화연구의 패러다임 위기,” 『진보평론』 제14호, online: <http://jbreview.jinbo.net/maynews/read-view.php?table=organ&item=2&no=339>.

34) Slack, “The Theory and Method of Articulation,” 118-121.

통한다. 특히 접합의 조건, 즉 집단과 이데올로기와 실천들 사이의 ‘상응’ 관계에 대한 논의는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 논쟁의 핵심 이슈 중 하나인 ‘재현’(representation)의 문제와 관련된다. 필연적이지는 않으나 접합을 조건 짓는 어떤 경향성이 있다는 홀의 입장은 곧 그가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의 중간 지점에 있음을 보여준다. 그는 하버마스(Jürgen Habermas)가 단수로 표현한 ‘모더니즘의 충동’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며, 현대 문화의 현상들 가운데는 모더니즘으로 설명할 수 없는 특징들이 있음을 인정한다. 그러나 그는 료타르(Jean-François Lyotard)가 말하는 ‘포스트모던 조건’이라는 절대적으로 새롭고 통일된 어떤 것이 있다고도 보지 않는다. 홀은 푸코가 정상화, 규제, 감시를 통한 권력 행사, 그리고 그에 대한 저항을 말하지만, 이데올로기를 통해 지배성이 구성되는 문제 또는 세력 관계에 대해 침묵함으로써 스스로 정치를 부정한다고 지적한다. 문화의 생산과 소비 양식에 질적인 변화가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홀이 보기에 그것은 재현 자체가 봉쇄되었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³⁵⁾

모더니즘/포스트모더니즘 논쟁에 관련된 또 하나의 중요한 이슈는 ‘정체성’에 대한 이해이다. 홀은, 영국 대처 정부의 정책들에 대한 경험을 통해, 본질주의(essentialism)에 기초한 ‘정체성의 정치’(identity politics)가 가진 한계를 보여준다. 그는 대처 정부의 다문화주의 정책이 인종과 민족 정체성을 타자화 함으로써 ‘영국적인 것’(Englishness)의 우월성을 고착화시키는 현상에 주목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족성’(또는 종족성, ethnicity)이란 ‘언제나’ 그리고 ‘이미’ 주변화 되어 주류에 들 수 없는 것으로 은연중 받아들여진다. 이에 반해 ‘영국적인 것’ 또는 ‘미국적인 것’이 ‘종족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³⁶⁾

35) Grossberg, ed., “On Postmodernism and Articulation: An Interview with Stuart Hall,” 103-113.

36) Stuart Hall, “New Ethnicities,” in *Stuart Hall: Critical Dialogues in Cultural*

이상에서 나는 사회 집단들의 구성과 실천이라는 문제를 중심으로 홀의 문화연구 작업을 정리했다. 그럼 이러한 문화연구의 결과들은 성서 연구와 어떻게 접합될 수 있으며, 성서 연구는 문화연구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또 문화연구를 풍부하게 하는 데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까? 매리 톨버트는 정체성의 정치에 대한 비판적 고찰과 대안 모색을 통해, 그리고 그러한 문화 분석에 기초한 성서 해석학의 탐구를 통해 그 한 모범을 보여준다.

V. 매리 톨버트: 정체성과 연대를 위한 비본질주의적 대안

톨버트(Mary Ann Tolbert)는 페르난도 세고비아(Fernando F. Segovia)와 함께 미국 성서학계의 문화연구 운동을 주도한 사람이다.³⁷⁾ 두 사람은 성서 해석에 존재하는 관점 또는 입장의 문제와 지역적 차이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는 가운데, 1991년부터 성별 (gender), 인종, 종족, 계급, 성성 (sexual orientation), 종교, 사회정치적 맥락 등 해석자의 다양한 사회적 위치가 성서 해석과 어떤 영향을 주고받는지의 문제를 다루는 집단적 연구를 기획한다. 이러한 계획은 1993년 1월과 10월에 각각 열린 두 학회로 첫 열매를 맺게 되는데, 미국 내의 문화적 이슈를 다룬 첫 모임에는 미국 각지의 성서학자들과 신학자들이 모였고, 두 번째 모임은 지구적 맥락(global context)을 고려한 국제 학회였다. 톨버트와 세고비아는 이 두 모임에서 발표된 글들을 모아 각각 『이 자리로부터 읽기』(*Reading from This Place*, 1995) 제1권과 제2권으로 출간했는데,³⁸⁾ 이 시리즈는

Studies (eds. Morley and Chen), 441-449.

37) 톨버트는 1994년까지 세고비아와 함께 밴더빌트대학교(Vanderbilt University)의 신약학 교수로 재직했으며, 지금은 GTU(Graduate Theological Union)에서 가르치고 있다.

38) 그 모임 이후 교육의 문제를 중심으로 심화 연구된 내용들은 다시 『성서 가르치기』

이후 문화연구를 통한 성서 해석의 교과서가 되었다.³⁹⁾

이 두 권의 책에 톨버트는 후기(epilogues)를 포함한 네 편의 논문을 실었는데, 이 글들은 사실상 연속된 하나의 작품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서 그녀는 ‘위치 지어짐의 정치학과 시학’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문화이론과 문학이론을 전개하고 있다. 스텐어트 홀과 같이 톨버트의 문화이론, 즉 ‘위치 지어짐의 정치학’은 다양한 집단들이 복합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투쟁하며 공존하는 상황에서 출발한다. 그러나 홀이 집단 간의 역학에 주목하는 반면, 톨버트는 집단을 구성하는 각 개인들과 집단의 관계에 관심을 기울인다. 홀이 단순히 계급으로만 나눌 수 없는 사회구성체의 복합성에 대해 말한다면, 톨버트는 한 개인의 복합성과 유동성에 주목하며, 집단이 그 구성원들을 적절하게 대변할 수 있는 문화 전략의 가능성을 모색한다.

그녀는 그 동안 문화 운동의 전략이 되어온 ‘정체성의 정치’가 많은 기여를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한계를 가지고 있음을 지적하는데, 이는 ‘나’라는 존재가 항상 동일한 하나의 정체성을 가진 통일된 자아가 아니라, 때에 따라 맥락에 따라 서로 다른 지위를 점하며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유동적인 (fluid) 주체들의 집합체이기 때문이다.⁴⁰⁾ 그러한 여러

(Teaching the Bible)라는 제목의 제3권으로 출간되었다. 이 책들의 서지 사항은 다음과 같다. Fernando F. Segovia and Mary Ann Tolbert, eds., *Reading from This Place, vol.1: Social Location and Biblical Interpretation in the United States* (Minneapolis, Fortress, 1995); *Reading from This Place, vol. 2: Social Location and Biblical Interpretation in Global Perspective* (Minneapolis, Fortress, 1995); *Teaching the Bible: The Discourses and Politics of Biblical Pedagogy* (Maryknoll, N.Y.: Orbis, 1998)

39) 이 두 권의 책에서 세고비아와 톨버트는 각각 서론과 후기를 썼다. 세고비아의 글들이 성서학 내 문화연구라는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며 큰 틀을 짜는 성격이라면, 톨버트의 글들은 섬세한 모직물을 짜듯 세밀하고 정교한 논리 전개가 특징이다.

40) Mary Ann Tolbert, “Reading for Liberation,” in *Reading from This Place, vol. 1*, 266.

가지 지위들 중에서 우리가 차지하는 특권적 위치는 옳고 정상적이고 문제없는 것으로 인식되어 눈에 띄지 않는 반면, 지배적 기준으로부터 벗어나 차별 받는 조건들이 눈에 뜨이게 되고, 우리는 그 조건들과 동일시되는 경향이 있다.⁴¹⁾ 예를 들어 장애인은 그 사람의 다른 어떤 조건과 관계없이 ‘장애인’으로 인식되며, 미국 사회에서 다른 인종의 사람들이 나를 대할 때 나의 사회적 지위와 교육 수준에 관계없이 먼저 ‘아시아인’으로 나를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정체성의 정치는 이런 방식으로 주변화 되어 온 (marginalized) 집단들로 하여금 스스로의 정체성에 자부심을 갖게 하고 하나로 결집하여 목소리를 내게 하는 데 기여해 왔다. 그러나 정체성의 정치는 우리의 집단적 정체성이 우리가 세상을 보는 관점을 ‘결정’하고 오직 우리만이 그런 관점을 가질 수 있다는 오해를 자아내기도 한다. 예를 들어, 톰(Tom)이라는 사람은 흑인이기 때문에 흑인의 방식으로 사물을 바라볼 수밖에 없고 오직 흑인들만이 그리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주의 (perspectivalism)는 ‘여성은 여성들을 위해’ 성서를 해석하고 ‘아프리카 사람은 아프리카 사람들을 위해’ 해석한다는 논리적 귀결에 이르게 되며, 그 결과 한국인인 나의 시각으로 본 성서해석은 서구의 백인에게는 별 의미가 없는 것으로 쉽게 배제될 수 있다.⁴²⁾

유체와 같이 변화하는 정체성에 대한 이해는 톨버트가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 하에서 사고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그녀는 포스트모더니

41) 같은 책, 273.

42) 이러한 정체성 이해에서 빚어지는 오류를 설명하기 위해 한 예를 들어보자. 대만 출신의 신학자 송천성(C. S. Song)을 가리켜 ‘아시아신학자’라 할 때, 많은 미국인들은 그의 사상을 아시아의 특산물 정도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 말하자면, 그가 ‘아시아신학’을 한다는 것은 ‘아시아인만이 가질 수 있는 특수한 관점’으로 학문을 한다는 것이며, 그것은 ‘아시아인을 위한 것’이고, ‘아시아인만이 바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미국인은 송천성의 신학을 잘 이해하지 않아도 된다. 이처럼 그의 가치는 ‘이국적’(exotic)인데 있을 뿐 미국인 자신들에게는 별 의미가 없는 것으로 쉽게 간주될 수 있다.

즘이 정체성의 정치를 대체할 만한 다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함을 지적한다. 톨버트는 미국의 많은 포스트구조주의자들이 서구 형이상학에 대한 데리다의 비판을 ‘차이의 유희’로 변질시켜 엘리트적 허무주의에 빠져 버리는 경향이 있다고 비판한다. 이들이 쉽게 간과하는 것은, 이론적으로 어떻게 다루어지든, 현 사회 구조가 이미 ‘진리,’ ‘의미,’ ‘정의’와 같은 주장들로 깊이 암호화되어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 점을 신중하게 고려하지 않는 ‘차이’에 대한 일방적 주장들은 오히려 권력을 가진 자들이 그 권력을 유지하는 것을 돕게 된다.⁴³⁾

포스트모더니즘은 본질주의의 문제점을 잘 보여주지만 그와 함께 정체성의 정치가 가진 전략적 이점들까지 포기해 버리는 경향이 있다. 모더니즘에 기초한 정체성의 정치가 협소하고 엄격하게 한 집단의 ‘본질’을 규정함으로써 같은 집단 내에 충성도가 낮은 사람들을 배제할 수 있게 해 온 것이 사실이지만, 톨버트는 현대 서구 사회의 인종주의적 가부장적 현실에 대항하는 정치적 연대를 위해서는 여전히 어떤 정체성의 개념이 요구되는 것을 인정한다. 이러한 현실에 대한 숙고에 기초하여 톨버트는 본질주의와 그 반대 입장의 변증법적 종합을 시도한다.⁴⁴⁾

43) 톨버트는 포스트모더니즘이 서구 문명을 비판하긴 하지만 결국은 그것조차 서구 문명의 혜택을 받으면서 이루어지는 ‘공모적 비판(complicitous critique)’으로서 우리가 떠나려고 하는 바로 그 세력 구조와 결탁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그러한 결탁은 많은 포스트모더니스트들의 실천을 구성(construction)으로서의 문화 분석과 비판에 그치게 하고 있다. 그러한 구성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인간 행동에 대한 어떤 실제적인 인식도 배제한 채 말이다. Tolbert, “The Politics and Poetics of Location,” in *Reading from This Place*, vol. 1, 309.

44) 비슷한 관점에서 가야트리 스피박(Gayatri C. Spivak)은 ‘전략적 본질주의’의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그녀의 입장은 앞으로 서술할 톨버트의 제안만큼 구체화되지는 않았다. 다음 글들을 보라. Spivak, “In a Word: Interview,” in *Outside in the Teaching Machine* (ed. idem.; London: Routledge, 1993), 1-23; idem, “Subaltern Studies: deconstructing Historiography,” in *In Other Words: Essays in Cultural Politics* (ed. idem.; London: Routledge, 1988), 202; idem, “Feminism and Critical Theory,” in *In Other Words*, 91-92.

톨버트는 아드리엔 리치(Adriene Rich)의 ‘혈연적 사실들’(facts of blood)과 ‘빵의 사실들’(facts of bread)의 메타포를 사용하여, 정체성의 ‘본질적’ 연대를 긍정하면서도 삶의 경험의 복잡성과 유동성을 함께 반영하는 그녀의 문화이론을 전개한다. ‘혈연적 사실들’이란 인종, 성별, 종족, 성성, 가족 유대 등 정체성의 정치에서 종종 ‘본질적’인 것으로 인식되는 요인들을 말한다. 그러나 한 사람 속에는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 ‘혈연적 사실들’이 복합되어 있으며, 그 요인들은 모두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혈연적 사실들’은 우리가 유동적이고 복합적인 존재임을 보여준다. 반면에 ‘빵의 사실들’은 우리의 국가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를 말한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요구를 가지고 목소리를 낼 때, 이 ‘빵의 사실들’들은 우리의 권위의 근거가 되어, 누가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누가 듣지 않을지를 결정하게 된다. 이렇게 혈연적 사실들과 빵의 사실들(facts of blood and bread)은 함께 작용하여 우리를 어떤 순간에 ‘권력에의 접근, 억압으로부터의 자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진실성’ 등에 관련하여 사회 정치적으로 ‘위치 짓게’ 되며, 또 그러한 조건들은 각자의 정치적 연대를 위한 선택의 범위를 형성하게 된다.⁴⁵⁾

‘위치 지어짐의 정치학’에서 개인들 간의 연대는 협소한 ‘본질’ 규정이나 특수한 집단적 상황에 의해 규정되기보다는 억압의 경험에 기초한다. 여기서 결속의 토대는 겹쳐지는 ‘정체성’이 아니라 새로운 현실에 대한 공유된 열망에 있다.⁴⁶⁾ 이러한 방식의 연대는 한 집단 내에서 정체성의 어느 한 ‘요소’가 특권적 위치를 차지하여 다른 요소들을 억압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또 이러한 연대는 다른 집단의 다양한 투쟁들과의 결속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에 열려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많은 정체성

45) 같은 책, 311-312; Tolbert, “When Resistance Becomes Repression: Mark 13:9-27 and the Poetics of Location,” in *Reading from This Place*, vol. 2, 331.

46) Tolbert, “The Politics and Poetics of Location,” 313.

집단들이 자신의 ‘불리한’ 요인들로 인한 차별에 저항하여 투쟁하는 반면, 자신들의 특권적 위치에 대해서는 함구함으로써, 결국 그 ‘불리한’ 요인을 제외한 다른 모든 점에서는 기존의 현실이 유지되도록 돕게 되는 문제에 빛을 던져줄 수 있다.

톨버트가 제시하는 ‘연대’와 ‘결속’은, 한 편으로, 집단 간의 관계에 치중한 홀의 ‘접합’ 개념을 개인과 집단의 관계라는 측면에서 정교화하며, 다른 한 편으로, 그 연대를 현실 속에서 구체화하기 위해 홀의 전략, 특히 이데올로기적 세력 관계에 대한 그의 분석에서 도움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홀과 톨버트는 모두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 사이에서 변증법적 종합을 시도한다. 그러나 톨버트가 -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것들이 사실은 ‘문화적으로 형성된 것’임을 보여주려는 - 포스트모던 프로젝트에 좀 더 가까운 반면,⁴⁷⁾ 홀은 경제적 조건과 집단 관계에 주목함으로써 좀 더 모더니즘에 가까운 관심을 보여준다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차이는 양자 간 논쟁의 요소이면서 동시에 서로를 보완할 수 있는 지점이기도 하다.

VI. 수사학이자 윤리학으로서의 성서 해석학

톨버트는 이처럼 그녀의 독특한 문화이론으로 문화연구를 보완할 뿐만 아니라 ‘위치 지어짐의 정치학’에 근거한 ‘위치 지어짐의 시학’을 통해 성서해석학의 과제를 조명한다. 그녀는 각각의 쓰기와 읽기 그리고 이론화의 자리들을 그 기초가 되는 역사적, 문화적, 정치적, 사회적 맥락에서 분석하고, 독자의 사회적 위치가 그 해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

47) Linda Hutcheon, *The Politics of Postmodernism* (New York: Routledge, 1989), 2.

해 낸다.⁴⁸⁾ 이처럼 ‘위치 지어짐의 시학’은 인간 경험의 다원성과 복잡성 그리고 맥락 지어짐(contextuality)에 근거한다. 그러나 이러한 유동성(fluidity)은 모든 관점들이 모든 시대 모든 주체들에게 타당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와 동시에 톨버트는 언어가 단순히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구성’하기도 한다는 포스크구조주의적 관찰에도 유의한다. 독자의 사회적 위치와 그 해석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상호 영향에 대한 인식은 그녀로 하여금 성서 해석이 가진 수사학적 기능에 주목하게 한다.⁴⁹⁾ 수사학으로서의 해석학은 언어가 가진 힘, 즉 세계를 창조하기도 하고 파괴하기도 하며 선함과 진실함과 아름다움을 표상하는 힘을 신중히 고려한다. 따라서 해석자는 다른 입장들을 주의 깊게 충분히 경청하며, 다른 해석들을 비판하기에 앞서 자신의 이기적 관심을 철저히 분석해낼 줄 알아야 한다.⁵⁰⁾

성서 해석의 수사학적 성격은 그 해석이 다른 사람들에게 미칠 결과에 대한 윤리적 책임의 문제를 불러일으킨다. 엘리자베드 쉬슬러 피오렌자(Elisabeth Schüssler Fiorenza)는 서로 경쟁하는 다양한 해석들이 단순히 옳고 그른 것으로 판단되기보다는 본문을 읽고 역사적 의미를 구성하는 서로 다른 방법들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이를 위해서는 해석자의 수사학적 전략과 관점, 윤리적 기준, 이론적 틀, 종교적 전제, 사회정치적 위치들을 분명히 밝히고 공적인 토론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한다.⁵¹⁾ 그러나 모든 해석들이 청중들로 하여금 어떤 가치와 역할을 받아들이고 다른 가치와 역할은 버리도록 설득하는 수사학적 주장의 성격을 가

48) Tolbert, “The Politics and Poetics of Location,” 314.

49) 같은 책, 315-316.

50) 같은 책, 316-317.

51) Elisabeth Schüssler Fiorenza, “The Ethics of Biblical Interpretation: Decentering Biblical Scholarship,” *Journal of Biblical Literature* 107 (1988): 14.

지고 있음을 고려할 때, 성서 해석은 ‘타당성’(validity) 또는 ‘정당성’(legitimacy)의 질문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톨버트는 특히 많은 사람들의 공적이고 사적인 삶에 큰 힘을 미칠 수 있는 전통적 권위를 가진 성서와 같은 권위 있는 텍스트의 해석은, 그 문학적 역사적 의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피조물의 고결함과 존엄성에 대해 미칠 수 있는 신학적 윤리적 결과를 가지고 평가되어야 한다고 말한다.⁵²⁾ 결과적으로, 수사학으로서의 해석학은 또한 해석의 윤리학으로 발전되어야 할 것이다.

그럼 성서 해석을 윤리적으로 가늠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일까? 이러한 윤리적 숙고는 청중에 대한 고려에 기초한 것이기에 그 기준 역시 해석자와 청중의 맥락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⁵³⁾ 톨버트는 자신의 특수한 맥락에 기초하여 ‘사랑의 창조자 하나님’에 대한 기독교적 긍정으로부터 그 신학 윤리적 기준을 끌어낸다. 즉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은 누구도 - 소유의 대상으로 삼거나 확대하거나 이용하거나 의도적으로 무시

52) Tolbert, “When Resistance Becomes Repression,” 333, 345.

53) 다니엘 팻(Daniel Patte)은 그의 책 *Ethics of Biblical Interpretation: A Reevaluation* (Louisville, Ky.: Westminster John Knox, 1995)에서 세 가지 관찰에 기초하여 해석의 윤리를 제시한다. (1) 모든 해석들은 ‘다차원적’이다. (2) 비판적인 주석도 어떤 이해관계에 연루되어 있기 마련이다. (3) 다차원성은 필연적이지만 모든 해석은 그 ‘책임’에 따라 평가되어야 한다. 그 책임에 관하여 팻은 - 해석자의 맥락을 적절히 고려하지 않는 - ‘남성중심적’(androcentric)이고 ‘유럽중심적’(Eurocentric)인 해석 양식으로부터, 그러한 맥락에 민감한 자의식에 기초한 비판적(androcritical) 해석 양식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쉬슬러 피오렌자는 요한계시록을 연구한 글에서 심판에 대한 종말론적 환상이 억압을 정당화하기 위해 오용될 수 있음을 지적한다. 그녀는 독자의 수사학적 상황(rhetorical situation)을 요한계시록에 기술된 그것과 비교하여 신학-윤리적 적합성을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Schüssler Fiorenza, “Visionary Rhetoric and Social-Political Situation,” in *The Book of Revelation - Justice and Judgment* (ed. Idem; Minneapolis: Fortress, 1988), 192-199.

해석의 윤리에 대한 연구서로 다음 책들이 더 있다. David Penchansky, *The Politics of Biblical Interpretation: A Postmodern Reading* (Macon, Ga.: Mercer University Press, 1995); Schüssler Fiorenza, *Rhetoric and Ethic: The Politics of Biblical Studies* (Minneapolis: Fortress, 1999).

하는 등 - 인간 이하로 대우되어서는 안 되고 또한 인간의 탐욕과 지배 욕망으로 인해 창조의 온전함이 위협되어서도 안 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톨버트는 이러한 확신에 어긋나는 성서 해석은, 그것이 역사적으로 옹호될 수 있을지라도, 그 ‘진리성,’ ‘타당성,’ ‘정당성’ 또는 ‘정확성’이 심각하게 질문되어야 한다는 해석의 윤리적 원칙을 제시한다.⁵⁴⁾

VII. 성서 연구를 통한 한국 기독교 문화연구

지금까지 나는 스투어트 홀과 매리 톨버트를 중심으로 문화연구와 성서 연구의 만남의 가능성을 모색해 보았다. 홀은 사회 구성에 그리고 톨버트는 개인의 정체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전자가 좀 더 거시적이고 후자가 좀 더 미시적이라는 차이는 있으나,⁵⁵⁾ 두 사람의 논의는 모두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 사이 어느 지점에 존재하며, 문화 전략에 대한 관심으로 두 사상 조류의 단점을 극복하고 장점을 발전시키는 길을 모색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된다. 이러한 차이와 공통점은 문화연구의 넓은 스펙트럼을 보여주는 좋은 예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홀과 톨버트 사이에서 나타나는 차이는 두 사람이 각자를 위치시키는 맥락의 차이에 기인한다. 이것은 현실과 실천을 강조하는 문화연구의 특성으로 말미암은 것이기도 하다. 슬랙(Slack)의 표현대로 문화연구는 ‘맥

54) Tolbert, "When Resistance Becomes Repression," 346.

55) 스투어트 홀의 논의가 개인과 주체의 문제로부터 벗어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는 계급주체가 경제적 정치적 이데올로기적으로 통일되어 있음을 가정하는 고전적 입장을 비판하며, 계급 주체의 비동질적 성격을 강조한다. 그는 그람시에게서 ‘헤게모니적’ 계기가 단순한 통일의 계기가 아니라 통일로 나아가는 과정으로 개념화 되고, 또 그 과정은 미리 주어진 정체성에 기초하기보다는 상이한 영역들 간의 전략적 결속에 기초해 있음을 강조한다. 이러한 전략적 설명은 톨버트의 ‘위치 지어짐의 정치학’이 제시하는 연대와 결속 방안과 매우 흡사하다. Hall, "Gramsci's Relevance for the Study of Race and Ethnicity," 437.

락의 지도 그리기'(to map the context)로 이해할 수 있다. 이것은, 주체와 맥락을 이분법으로 나누기보다는, 정체성과 그 사회적 위치가 함께 어우러진 것으로서의 맥락의 지도를 그리는 것이다. 여기서 맥락이란 저 바깥 어디에 있는 그 무엇이 아니다. 오히려 우리의 정체성, 실천, 그리고 실천의 효과들이 함께 맥락을 구성한다.⁵⁶⁾

홀과 톨버트의 문화 이론을 영국과 미국이라는 맥락과 분리시킬 수 없듯이, 한국 문화연구는 결코 한국이라는 사회적 위치와 한국인이라는 주체로부터 분리될 수 없다. 한국 문화연구란 곧 ‘한국의 맥락에 대한 지도 그리기’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이 한국이라는 정체성, 한국인이라는 맥락을 하나의 ‘본질’(essence)로 이해함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따라서 서구의 이론이라고 해서 단순히 배척할 일은 아니다.

톨버트가 제기한 ‘수사학으로서의 해석학’과 ‘해석의 윤리’라는 서로 관련된 두 주제들은 ‘성서 연구를 통한 한국 문화연구’를 위해 좋은 참조자료가 될 수 있다. 특히 요즘과 같이 교회의 일거수일투족에 뉴스의 초점이 모아지고 기독교의 가르침들과 문화/정치적 입장의 관련성이 긴밀하게 나타나는 때에는 성서해석의 수사학적 성격이 한국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극명하다. 이러한 수사학적 성격을 깊이 인식하는 성서 해석은 항상 그 해석이 사람들 가운데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에 대해 신중히 고려해야 하며, 해석자 자신이 점하고 있는 특권적 위치에 대해서 그리고 성서 해석에 은연중 담기게 되는 이기적 욕망에 대해 민감하고 비판적이어야 할 것이다.

홀이 제기한 ‘접합의 조건’ 문제 역시 한국 교회의 문화적 정치적 입장과 관련하여 신중하게 다루어질 만한 이슈이다. 소위 보수적인 신앙과 보수적인 문화/정치적 입장 사이에 나타나는 상응 관계가 과연 필연적인

56) Slack, “The Theory and Method of Articulation,” 125.

가 하는 질문을 던져볼 수 있다. 그것이 화물 자동차의 앞 뒤 부분을 잇는 고리처럼 ‘어떤 조건에서는’ 연결될 수 있고 또 다른 조건에서는 분리될 수 있는 것이라면, 문화 변혁을 위해 교회가 순기능을 담당하게 할 수 있는 접합의 조건, 그리고 그러한 접합에 이르게 할 수 있는 교회 내의 ‘시민사회’적 노력은 무엇일까 하는 고민도 해 볼 직하다. 그러나 문화의 변혁과 교회를 위한 시민사회적 계도에 관심을 가질수록, 우리는 먼저 우리 가운데 존재하는 ‘차이’를 인정하는 법을 배우기에 힘써야 할 것이다. 서로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는 일이 ‘사랑의 창조자 하나님’을 윤리적 기준으로 삼는 성서 해석의 출발점이 되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 강옥초. “왜 한국에서 아직도 그람시인가?” 『역사비평』 1998 겨울호 (1998.11): 282-299.
- 문용식. “문화연구란 무엇인가?” 『총신대 논총』 제23호 (2003): 347-370.
- 박종균. “대안적 커뮤니케이션 양식과 기독교.” 『세계의 신학』 제46호 (2000년 3월): 151-172.
- 원용진. “문화연구와 스투어트 홀.” 『문화과학』 제23호 (2000년 9월): 295-319.
- 원용진. “한국의 문화연구 지형.” 『문화과학』 제38호 (2004년 6월): 138-153.
- 이해영. “안토니오 그람시: 거절당한 혁명과 혁명의 미래.” 『동향과 전망』 37 (1998. 4): 241-258.
- 하윤근. “문화연구의 패러다임 위기.” 『진보평론』 제14호. Online: <http://jreview.jinbo.net/maynews/readview.php?table=organ&item=2&no=339>.
- Althusser, Louis. “Contradiction and Overdetermination.” Pages 87-128 in *For Marx*. Translated by Ben Brewster. The Penguin Press, 1969.
- Althusser, Louis. “Ideology and Ideological State Apparatuses (Notes towards an Investigation).” in Pages 127-186 in *Lenin and Philosophy and Other*

- Essays*. Translated by Ben Brewster. New York: Monthly Review Press, 1979.
- Gramsci, Antonio. "Modern Prince," in Pages 125-202 in *Selections from the Prison Notebooks of Antonio Gramsci*. Edited and translated by Quintin Hoare and Geogrey Nowell Smith. N.Y.: International Publishers, 1971.
- Gramsci, Antonio. "Some Aspects of the Southern Question." in *Selections from Political Writings (1921-1926)*. Edited and translated by Quintin Hoare. London: Lawrence and Wishart, 1978.
- Gramsci, Antonio. "State and Civil Society," Pages 210-276 in *Selections from the Prison Notebooks*.
- Grossberg, Lawrence, ed. "On Postmodernism and Articulation: An Interview with Stuart Hall." 임영호 옮김. "포스트모더니즘과 접합: 스투어트 홀과의 대담." 『스튜어트 홀의 문화 이론』. 서울: 한나래, 1996. 103-134.
- Hall, Stuart. "Cultural Studies and the Centre: Some Problematics and Problems." 임영호 옮김. "문화연구와 버밍엄 연구소 몇 가지 문제들과 문제들." 『스튜어트 홀의 문화 이론』. 137-202.
- Hall, Stuart. "Cultural Studies: Two Paradigms," 임영호 옮김. "문화연구의 두 가지 패러다임." 『스튜어트 홀의 문화 이론』. 203-232.
- Hall, Stuart. "Gramsci's Relevance for the Study of Race and Ethnicity." Pages 411-440 in *Stuart Hall: Critical Dialogues in Cultural Studies*. Edited by David Morley and Kuan-Hsing Chen. London: Routledge, 1996. (김덕련 옮김. "문화연구에서 그람시의 적절성." 『읽을거리』 제6호 (2000년 7월). Online: http://copyle.jinbo.net/reader/reader6_reader.html)
- Hall, Stuart. "New Ethnicities." Pages 441-449 in *Stuart Hall: Critical Dialogues in Cultural Studies*. Edited by Morley and Chen.
- Hall, Stuart. "Signification, Representation, Ideology: Althusser and the Post-Structuralist Debates." 임영호 옮김. "의미 작용, 재현, 이데올로기: 알튀세르와 후기 구조주의 논쟁." 『스튜어트 홀의 문화 이론』. 61-101.
- Hall, Stuart. "The Problem of Ideology: Marxism Without Guarantees." 임영호 옮김. "이데올로기의 문제: 보증 없는 마르크스주의." 『스튜어트 홀의 문화 이론』. 29-59.

- Hutcheon, Linda. *The Politics of Postmodernism*. New York: Routledge, 1989.
- Patte, Daniel. *Ethics of Biblical Interpretation: A Reevaluation*. Louisville, Ky.: Westminster John Knox, 1995.
- Said, Edward. *Culture and Imperialism*. New York: Vintage Books, 1993.
- Sardar, Ziauddin, and Borin Van Loon. *Introducing Cultural Studies*. New York: Totem Books, 1998. (이영아 옮김. 『문화연구』. 서울: 김영사, 2002).
- Schüssler Fiorenza, Elisabeth, ed. *The Book of Revelation - Justice and Judgment*. Minneapolis: Fortress, 1988.
- Schüssler Fiorenza, Elisabeth. "The Ethics of Biblical Interpretation: Decentering Biblical Scholarship." *Journal of Biblical Literature* 107 (1988): 3-17.
- Slack, Jennifer Daryl. "The Theory and Method of Articulation." Pages 112-127 in *Stuart Hall: Critical Dialogues in Cultural Studies*. Edited by Morley and Chen.
- Sparks, Colin. "Stuart Hall, Cultural Studies and Marxism." Pages 71-101 in *Stuart Hall: Critical Dialogues in Cultural Studies*. Edited by Morley and Chen. London: Routledge, 1996.
- Tolbert, Mary Ann. "Reading for Liberation." Pages 263-276 in *Reading from This Place, vol.1: Social Location and Biblical Interpretation in the United States*. Edited by Fernando F. Segovia and idem. Minneapolis, Fortress, 1995.
- Tolbert, Mary Ann. "The Politics and Poetics of Location" Pages 305-317 in *Reading from This Place, vol.1*. Minneapolis, Fortress, 1995.
- Tolbert, Mary Ann. "When Resistance Becomes Repression: Mark 13:9-27 and the Poetics of Location" Pages 331-346 in *Reading from This Place, vol. 2: Social Location and Biblical Interpretation in Global Perspective*. Edited by Fernando F. Segovia and Mary Ann Tolbert. Minneapolis, Fortress, 1995.